

2018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9. 2. 21. (목) 10:00~11:3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1명 중 8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한재준(의장), 김성호(부의장), 이준행, 박남춘
 - 나. 직원대표 : 이계원
 - 다. 학생대표 : 서운정
 - 라. 외 부 : 장유식, 박에스더
4. 불참자 : 정재훈, 김홍석, 손인웅
5. 심의 안건
 - 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나. 서울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

1. 전 회의록 낭독

2. 보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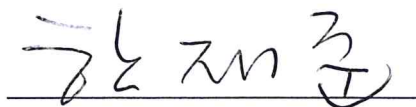
경영기획팀장이 2018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의견에 대한 법인사무국의 답변사항을 설명하다.

○ 법인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과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 하지만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중 학교의 부담금이 약 20억원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법인의 좀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이 필요하다.

○ 법인의 기부 캠페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가.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시스템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의 기부 캠페인으로 법인 부담금이 확보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서울여대를 살리기 위해 교계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작년에도 법인 국장과 총장이 교계를 방문하여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다.

<간서명> 의 장



온라인 모금에 대한 의견은 법인에 전달하겠다.

경영기획팀장이 2018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의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답변사항을 설명하다.

3.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위원들이 승인하다.

4.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

기획처장이 서울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을 설명하다.

○ 중장기발전계획(안) 중 'SWUMAN'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용어의 브랜드화가 조금 미진하고 일반인이나 외부인의 경우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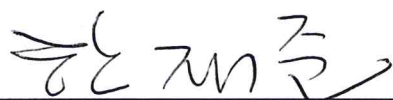
- 서울여대 학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중장기발전계획은 내부 구성원을 위한 하나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SWUMANITY는 SWU와 Humanity의 합성어이며 우리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미래 사회에 적응하며 인간중심의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실천력을 의미한다.

○ 교수, 학생, 직원이 발전계획공론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제로베이스부터 오늘의 중장기발전계획(안)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의 노고가 담긴 부분에 감사드린다.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안)은 교내 구성원들의 소통을 강화하였는데 향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대학평의위원회 등 교내 위원회 시스템이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간서명> 의 장



통한 소통이 미흡하다면 운영 방법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 보겠다. 학생과의 소통의 경우 총·처장단과의 간담회와 이를 반영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학생 및 교내 구성원과의 정례적인 대화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교수 및 직원, 학생과의 소통의 노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표현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과 ‘인문학’을 강조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디지털 문해력’을 강조하게 되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우려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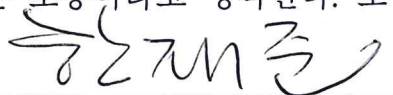
- 사회적 가치를 철학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정의하기보다 우리 대학의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될 핵심적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사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바름인성교육Ⅲ의 문제해결과 창의성 교육은 소셜 이노베이션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리터러시는 인문학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전공차원에서의 교육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저장, 활용, 응용에 대한 기술적 부분도 포함하며, 인문학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은 미래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문학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감성적 인지적 교육, 인문학적 소양 배양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리 대학의 미래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키워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 건학이념인 지·덕·술을 시대에 맞추어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안심을 하면서도 경쟁 사회 속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성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 좋은 것들이 하나라도 더 잘 실천되기를 바란다. 최선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며 최선의 계획을 최고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학생, 교수, 직원이 같은 잣대와 신념을 공유해야 한다. 이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학생, 교수, 직원이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획의 시작과 끝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의 자리가 많이

<간서명> 의 장



마련되고 소통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유되길 바란다.

○ 2030중장기발전계획(안)은 소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발전 계획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발전계획(안)은 마스터플랜이고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다. 대학 혁신을 이끄는 주체인 교수가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내용이 교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에 학교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지 교수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리 대학이 교육중심대학이라면 적어도 교수법이라도 특별히 연구해야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현재 교수에 대한 연구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의 전임금 확충 노력은 인정하나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실행으로는 명륜동 캠퍼스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동문, 학생들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정년퇴임 교수를 위한 연구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의장이 서울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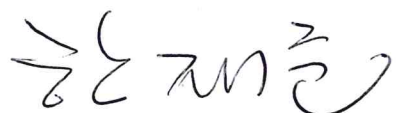
5.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19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차기 회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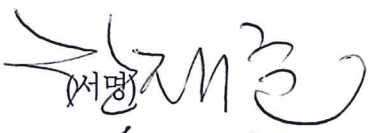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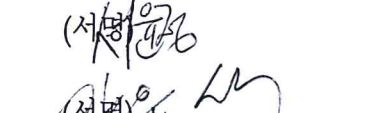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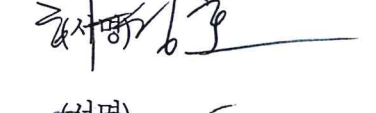
○ 차기 회의는 결산 자문을 위하여 2019년 4월 초로 예정하다.

<간서명> 의 장



의장이 11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9년 2월 21일

의 장	한 재 준	(서명) 
부 의 장	김 성 호	(서명) 
평 의 원	이 준 행	(서명) 
평 의 원	박 남 춘	(서명) 
평 의 원	이 계 원	(서명) 
평 의 원	서 윤 정	(서명) 
평 의 원	장 유 식	(서명) 
평 의 원	박 에 스 더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 
기 록	김 근 아	(서명) 